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음악대학소식

 서울대학교 교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인사의 말씀 04

Masterpieces by SNU

-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6
-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08
-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9
- SNU String Ensemble 10
- SNU Wind Ensemble 10

국악의 향기

- 국악과 정기연주회 12
- 국악과 교수연주회 13

사회와 함께하는 음악대학

- 교육부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 14
- 인재개발원 MOU 15
- 서울시 교육청 MOU 15
- 대학탐방 현장체험학습 16
- 시흥시 청소년 사업 17
- 관악구민과 함께하는 화요음악회 18
- 희망과 감동의 음악_병원음악회 20

인터뷰

- 퇴임교수_성악과 강병운 명예교수 22
- 신임교수_국악과 김우진 교수 24
-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_국악과 김승근 교수 26

감사합니다

- 윤덕우, 최덕자 부부 28
- 김귀현, 이명현 교수 부부 28
- 김동수 동문 28
-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29

강의실을 찾아서

- 첼로 전공 실기 / 백청심 교수 30
- 음악의 원리 / 전상직 교수 32

이슈: 음악대학 복수전공 현황 34

브라보! 프라이즈 워너 36

학과 & 연구소 소식

- 예술계복합교육연구동 소식 40
- 음대 행사 안내지 발행 40
- 교수 동정 43
- 학과 및 연구소 소식 50

동문소식 52



Dean's Message 04

Masterpieces by SNU

- SNU Symphony Orchestra Regular Concert 06
- 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08
- 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09
- SNU String Ensemble 10
- SNU Wind Ensemble 10

Scent of Korean Music

- Dept. of Korean Music Regular Concert 12
- Dept. of Korean Music Faculty Concert 13

College of Music Outreach

- Student Orchestra Project of Ministry of Education 14
- MOU wi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15
- MOU with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5
- University-Campus Tour Field Trip 16
- Adolescent Service of the City of Si-Heung 17
- SNU Tuesday Concerts 18
- SNU Hospital Concerts 20

Interviews

- Prof. Emeritus Philip Kang, Retiring Professor 22
- Prof. Kim, Woojin New Professor to the Dept. of Korean Music 24
- Prof. Kim, Sngkn (Korean Music), The winner of Yumin Awards 26

Appreciation

- Deok U Yun & Deok Ja Choi 28
- Prof. Kwi-Hyun Kim & Prof. Emeritus Myeong Hyeon Lee 28
- Prof. Dong Su Kim 28
-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29

Classroom

- Cello (Instrument) /Prof. Chung sim baik 30
- Elements and Structural Principles of Music /Prof. Sangjick Jun 32

Issue: Double Major Status Report 34

Bravo! Prize Winner 36

Academic Activities

- News from Art Research Center 40
- Newsletter publication of announcements and upcoming events of College of Music 40
- Faculty Activities 43
- Wrap-up News 50

Alumni News 52

인사의 말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음악대학 소식지 제1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음악대학의 풍성한 활동이 담긴 이번 소식지에서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신 여러 교수님의 활동과 성실하게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며 맘을 흘린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학기도 저희 음악대학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사회와 함께 하는 음악대학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였습니다.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하였고, 서울시 교육청, 인재개발원과 MOU를 맺었으며, 시흥시 청소년 음악 멘토링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음악대학은 한국 사회에서 보다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대학은 이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올 가을에는 발전위원회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능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내에서 음악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최고의 음악교육의 산실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획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김영률

음악대학 학장 김영률

Dean's Message

Entering into the season of harvest and abundance, the twelfth issue of the Newsletter of the College of Music has been published. In this newsletter, full of vigorous activities of our College of Music, you will be able to meet professors excelling in their fields and students sweating and tearing in efforts to perfect their skills to become the best in the field now and in the future. Detailed descriptions and articles will guide you through the outstanding activities of the last semeste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NU College of Music had accomplished much in the last semester, both at home and abroad. I must mention the active interaction and cooperation of the SNU College of Music with society. The SNU College of Music started Student Orchestra Project, signed MOU with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City of Siheung, and Youth Music Mentoring Program of City of Siheung has been active and successful. I can say with no doubt that the College of Music of SNU has come to play more meaningful and significant role in Korean society through such valuable activities.

Now, our SNU College of Music has arrived at another watershed, for it to run up to the next level. In this fall semester, we will establish a development committee in order to plan and design schemes to realize long-term visions for our school. And I will also establish systems and infrastructures to promote better environment for students to freely demonstrate and refine their abilities.

In this regard, I hereby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our movement to elevate the position of the College of Music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solidate the status of the College of Music as the greatest music conservatory and the cradle of the best music education of Korea.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trust, faith, interest in the College of Music of SNU.

September, 2013

Youngwook Kim

Dean of the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NU Symphony Orchestra Regular Concert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Symphony Orchestra was held on June 22nd in the Concert Hall of Seoul Arts Center. SNU Symphony Orchestra reappeared a year after their successful performance of Bruckner's Symphony with another masterpiece of Bruckner, and recreated the scene of overwhelming emotion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this time in much more splendid and fascinating manner. The orchestra presented Mozart's (Violin Concerto No. 1 in B flat Major, K. 207) and Bruckner's (Symphony No. 7 in E Major, WAB 107). The program of the concert allowed audience to have experience contrastive acoustical effects of both minimal orchestration of the Classical period and grandeur scale orchestration of Late-Romantic period and offered much musical delight.

2013년 6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6일에 걸친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연주이기도 했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해 봄 정기연주회에서 학교 사상 처음으로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선보인 이후 1년 만에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브루크너의 감동을 재현하였다. 또한 이번 봄 학기 정기연주회는 이경선 교수의 협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품격 있는 연주회가 완성되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B♭장조 K.207》과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E장조 WAB 107》로 구성된 이날 공연은 고전과 후기낭만, 아가지기한 소규모와 웅장한 대편성의 음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즐거움을 주었다.

전반부는 지휘자 없이 이경선 교수의 협연 무대로 진행되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B♭장조 K.207》은 1775년 4월 모차르트가 19세이던 해에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된 곡으로, 당시 바이올린 협주곡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아 모차르트만의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뛰어난 작품으로 탄생시킨 곡이다. 힘있고 격조 있는 바이올린 연주로 세계 무대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이경선 교수는 1악장에서 정갈하고 유려한 선율로, 2악장에서 풍부한 음색으로, 그리고 3악장에서는 격조 있고 열렬한 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한국적인 미가 돋보인 드레스는 무대 위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했다.

후반부에서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E장조 WAB 107》을 통해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높은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7번 E장조 WAB 107》은 대편성의 관현악곡으로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금관악기의 강렬한 음색이 어우러져 브루크너의 교향악곡 중에서도 서정적인 매력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곡이다. 장장 1시간 10분에 걸친 연주에서 지휘자 임현정 교수는 전 악장을 암보로 지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고르면서도 다채로운 음향, 완벽에 가까웠던 연주를 통해 그간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악장 윤지연(바이올린·10) 학생은 “이번 연주를 통해 브루크너의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처음에 하나로 모아지지 않던 소리들이 나중에 연주할 때쯤 되니 하나로 모아졌고 그 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단순한 소리가 아닌 브루크너라는 음악을 생각하면서 연주했던 것이었다.”고 평했다. 또한 “조금 더 완벽한 연주를 위해 연습 때마다 노력했던 모든 단원들과 임현정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고 하였다.

거대한 편성과 특유의 음향으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에서도 자주 연주되지 않는 브루크너의 곡을 작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선보인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도약은 현재 진행형이다. 매번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휘자와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다음 정기 공연이 기다려진다.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막바지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관악의 봄, 4월 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2013년 첫 연주회가 열렸다. 이날은 특히 '마에스트로 임헌정과 함께 하는 대학축전의 밤' 으로서 두 학생의 협연과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등이 연주되었다.

첫 순서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3막 전주곡》으로 풍부한 선율과 경쾌한 연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로엔그린》은 바그너가 《탄호이저》 이후에 완성한 오페라로서, 그의 독창적인 악극 형식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어서 전반부 공연의 주인공인 이진아(클라리넷 · 11) 학생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가 연주되었다. 동아음악콩쿠르 1위, 코리아 헤럴드콩쿠르 1위의 수상 경력을 가진 그녀는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에서 클라리넷 고유의 맑고 청롱한 소리로 관객의 귀를 정화시켜 주었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77》으로 화려한 후반부의 시작을 알린 하유나(바이올린 · 10) 학생은 열정적인 연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동아음악콩쿠르 2위, 바르코, 음연, 예원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한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유려한 선율로 브람스만의 감성을 표현하였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브람스 《대학축전서곡 Op.80》은 오페라 등과 관계가 없는 연주회용 서곡으로서 브람스가 괴팅겐에서 학생들과 어울렸던 무렵에 익힌 학생가 중 총 4가지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으로 쓰인 작품이다. 4월의 관악과도 어울리는 곡으로써, 환상적인 호흡을 보인 마에스트로 임헌정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놓지 않게 하였다. 이번 연주를 통해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높은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으며 6월에 있을 정기연주회 또한 기다려진다.

5월 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렸다. 첫 곡은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제2번 Op.64》로 김광현의 지휘 아래 연주되었다. 이 곡은 '몬테규가와 캐플렛가', '소녀 줄리엣', '로렌스 신부', '춤', '이별 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안티유 제도에서 온 처녀들의 춤', '줄리엣 묘 앞의 로미오'의 총 7곡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중인 지휘자 김광현은 명쾌한 해석력과 시종일관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이어서 이종진(지휘 박사 · 12)의 지휘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d단조 Op.47》이 연주되었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5번은 쇼스타코비치가 형식주의적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한 노력이 결집된 작품이다. 이종진의 지휘 아래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극복과 승리의 정신을 열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SNU Symphony Orchestra Campus Concert

The first campus concert of the SNU Symphony Orchestra in 2013 was held on April 8th in the Grand Hall of the Cultural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lead of conductor Hun-Joung Lim, the orchestra demonstrated their excellent ability as the country's leading musicians. In the first half of the concert, the orchestra performed Wagner's opera 《Lohengrin Act 3 Overture》 and Mozart's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with Jin-a Lee's clarinet. In the second half, they presented Brahms'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with Yuna Ha's violin, and the finale of the concert was Brahms's 《Academic Festival overture, Op. 80》.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SNU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was held on May 28th in the Concert Hall of the Art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ee different conductors participated in this concert, each of them conducting separate pieces. The orchestra performed Richard Strauss's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 with Conductor Min-sang Cho, the first and second movements of Beethoven's 《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with Young-rang Kim, and the third and fourth movements with Kyu-sung Lee.



5월 28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기악과 1,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김덕기 교수의 지도하에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수준 높은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슈트라우스의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와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Op.92》로 구성된 이날 연주에서 조민상(지휘 · 08), 김영랑(지휘 · 석사), 이규성(지휘 · 09)의 총 3명 학생이 지휘하였다.

첫 곡으로 연주된 슈트라우스의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는 온화하고 느긋한 바이올린 선율로 시작하여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음악적 표현이 특징적이다. 이 곡의 지휘를 맡은 조민상 학생은 매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등장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김영랑, 이규성 학생은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Op.92》를 각각 1,2악장 그리고 3,4악장을 나누어 지휘하였다. 리스트가 이 교향곡을 가리켜 “리듬의 신격화”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 작품은 리듬의 역동성이 매력적인 곡이다. 1,2악장을 지휘한 김영랑 학생은 섬세함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이어서 이규성 학생은 안정적인 지휘와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3,4악장을 성공적으로 연주하였다.

SNU String Ensemble

SNU String Ensemble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String Ensemble was held on May 24th in the Concert Hall of Art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eing conducted by Kang-Hoon Kim, SNU String Ensemble performed Largo Aftettuoso movement from Carlo Ricciotti's (Concertino No. 2), Mozart's (Divertimento No. 3, K. 138), the third and fourth movements from B. Britten's (Simple Symphony, Op. 4) in the first half of the concert. In the latter half, the ensemble presented J. S. Bach's (Concerto for Double Violins in d minor, BWV 1043) with Yeo-kyung Kim and In-young Cho's violin. The concert successfully closed with Hindemith's parodic and humorous string quartet piece (Minimax).



5월 24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에서는 현재 서울 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김강훈의 지휘와 본교 재학생인 김여경(바이올린 · 11), 조인영(바이올린 · 11)의 협연으로 17세기 작곡가 리치오티(C. Ricciotti)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힌데미트(P. Hindemith)에 이르는 새롭고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공연의 전반부에는 리치오티의 《Concertino No.2》중 Largo Aftettuoso 악장과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3번 K.138》, 브리튼(B. Britten)의 《단순한 교향곡 Simple Symphony Op.4》의 3, 4 악장이 연주되었고, 후반부에는 김여경과 조인영의 협연으로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1043》가 연주되었다. 이날 공연은 힌데미트의 패러디와 유머가 담긴 현악 4중주 《미니막스 Minimax》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NU Wind Ensemble

SNU Wind Ensemble

On last April 26th, the SNU Wind Ensemble held its regular concert in the Concert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Prof. Young-yul Kim's conducting. In this concert, Prof. Aviram Reichert, a globally renowned pianist, contributed as the featured guest performer and presented a moment of splendor for the audience. In the first half of the concert, SNU Wind Ensemble performed E. McDowell's (Woodland Sketches Op. 51) and Jean Françaix's (Onze Variations Sur Un thème De Haydn). The latter half of the concert was ornamented by Gershwin's (Rhapsody in Blue) with Prof. Aviram Reichert's piano solo, and Aaron Copland's (Emblems) as finale.



지난 4월 26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는 김영률 교수의 지휘 아래 아비람 라이케르트(Aviram Reichert) 교수와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공연의 전반부 작품으로는 미국의 작곡가 맥도웰(E. Macdowell)의 《숲의 정경 Woodland Sketches Op.51》과 신고전주의 작곡가 장 프랑세(Jean Françaix)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11 변주곡 Onze Variations Sur Un thème De Haydn》을 선보였다. 고요하고 전원적인 분위기의 전반부와 대조적으로, 후반부에는 청중들에게 잘 알려진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Rhapsody in Blue》가 아비람 라이케르트 교수의 피아노 협연으로 연주되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민요와 재즈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아론 코플랜드(Aaron Copland)의 《엠블럼 Emblems》이 화려하게 연주회의 끝을 장식했다. 학생들의 발전된 기량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곡들로 채워진 이번 공연은 동시에 대중들에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MASTERPIECES
BY
SNU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국악과 교수 음악회

Spring Concert of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April 24th, the Spring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Korean Music Department is known for presenting highly artistic and musical program and performance. The program of the concert consisted of the march 《Daechuita》, arrangement of 《Daechuita》 into chamber-scale ensemble for wind and string instruments 《Suyonamgeuk》, theatrical vocal music 《Opening of Eyes of Blind Shim》 from 《Simchung》, Won Il's chamber piece 《Flowing Il》, which fully reveals the unique tone-color of Haegum, Won-Haeng Cho's orchestra piece 《Earth》, and Dae-Sung Kim's orchestra piece 《Beginning》.



지난 4월 24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국악과 봄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관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으며 이는 국악과 봄 정기 연주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웅장한 타악기와 힘찬 관악기 선율이 돋보였던 행악 《대취타》가 이날의 첫 곡이었다. 이어 두 번째 곡으로는 앞서 선보였던 대취타를 관현합주로 편성한 세악 《수요남극》이 이어져 대취타와 대조적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심청가의 눈대목 중 하나인 입체창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이 이어졌는데 심봉사와 심청의 상봉장면이 너무나 애절하여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그리

고 얼씨구 지화자 좋다 등의 추임새는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만들어주었다. 네 번째 순서로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해금의 음색을 잘 표현한 원일 작곡 실내악 《호르는Ⅱ》이 연주되었다. 이어서 우리 인간의 근본이자 뿌리인 대지, 그리고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게 해 주었던 조원행 작곡 관현악 작품 《대지》가 연주되었다. 마지막 순서는 개혁된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열고자 하는 민중들의 염원을 담고자 쓰여진 곡인 김대성 작곡 관현악 작품 《개혁》이었다. 국악 특유의 강약 조절과 방지원 학생의 현란한 장구 독주는 관중들에게 큰 열정을 선사하였고 그 열정은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봄 정기연주회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7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인 5월을 맞아 제 2회 국악과 교수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SNU 국악 관현악단과 교수들의 협연 무대로 이루어졌던 지난 1회 음악회와는 다르게 국악과의 기악, 작곡 교수진들이 독주곡과 실내악곡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이 무대를 준비한 이들이 한 가족으로서 화목을 다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사명감과 열의를 새로이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음악회를 찾은 다양한 연령층의 청중들은 마치 한 가족을 연상케 했고 더불어 이 음악회의 취지를 한껏 빛내 주었다.

이날 첫 곡은 정상지곡이라고도 불리는 《별곡(도드리-하현도드리)》으로 정대석, 양경숙, 임재원, 이지영 교수가 연주하였다. 이 곡은 영산회상을 상영산에서 군악까지 차례로 연주하지 않고 영산회상에 도드리를 곁들여 타는 별개의 악곡이다. 다음으로 이지영 교수가 남성적인 느낌의 힘 있는 터치가 인상적인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였다. 그 다음으로 임재원 교수가 대금 독주곡 중에서도 가히 최상의 곡으로 꼽히는 《청성자진한

잎》을 연주하였다. 네 번째 순서로 이어진 연주는 정대석 교수의 《정대석류 거문고 산조》로 기존의 거문고 산조 가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락으로 짜여 있다는 특징이 있는 곡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무대는 양경숙 교수가 소리로 듣는 한 장의 사진 《해금을 위한 상》을 연주하였다. 이 작품은 사진에서 구사할 수 있는 구도와 명암을 다양한 리듬을 통해 표현하였다. 마지막 곡은 이날 초연된 곡인 《대금·해금·가야금과 거문고를 위한 4중주》로 김승근 교수가 이번 교수음악회를 위해 작곡했고 임재원, 양경숙, 이지영, 정대석 교수가 연주하였다. 악기의 조화를 통한 하나의 응집된 힘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곡은 네 대의 악기들이 느리고 유려하게 흐르는 가락 속에서 서로간의 대화를 이어가며 전통음악보다 더 전통적인 느낌을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악과 교수들은 청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최고 수준의 연주를 자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음악회는 교수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청중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해져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소통의 음악회였다.

Faculty Concert of Department of Korean Music

May is the month in which we appreciate and remember the meaning and value of our family. And on the 7th of this beautiful month, the second Faculty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This is the concert where faculty member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professors from instrumental music and composition majors, come together and demonstrate their superb performance ability and talent, which are regarded as Korea's best. Professors carefully select and prepares masterpieces and programs that are able to display and reveal the unique beauty of Korean music.



교육부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

Student Orchestra Project of Ministry of Education

서울대학교 음악대학(학장 김영률)은 지난 3월, 교육부(장관 서남수)에서 추진 중인 학교예술교육사업 중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음악대학 교수·전문예술인·전문행정팀으로 구성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을 구성하여 총괄 지원하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공교육 내에서 예술교육의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진정한 인성교육의 실현과 지역사회 예술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총 400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이후 3년간 창단비 및 운영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는 실제 학생들이 연주 가능한 악보뱅크, 지도교사를 위한 편곡법 및 지휘법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오프라인으로는 현장컨설팅, 교사연수 및 워크숍, 운영학교장 세미나 등 원활한 학생오케스트라 활동과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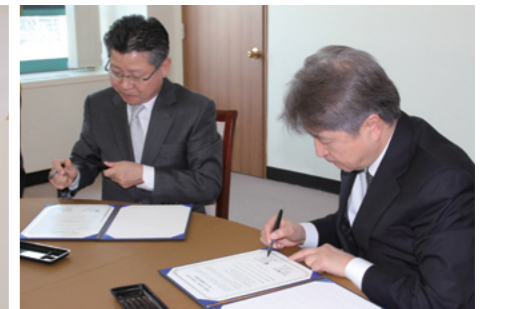
사업단 단장인 김영률 음악대학장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협동과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합주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다. 현재 김영률 학장을 비롯, 음악대학 교수진 전체가 사업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로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사업 면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규 선정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주에 걸쳐 이루어진 현장컨설팅에는 음악대학 교수진이 대거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전국의 학교들을 방문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단위학교 내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도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우리인재원에서 '2013년 학생오케스트라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

수'를 개최하였다. 신규 선정된 100개교 지도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김덕기(지휘), 전상직(작곡), 최경환(기악) 등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오케스트라 지도를 위한 음악적 기초와 편곡의 실제, 지휘법 등 핵심적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루었고, 음악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수에 참여해 지도교사들의 지휘 테크닉을 시연해 보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가졌다. 한편, 현재진행형인 기존 300개 학생오케스트라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과 음악대학 교수진은 지난 8월 음악이론 전반과 기초 지휘법 강의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구축·보완하고 문화예술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올 하반기 학생오케스트라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계 저명인들이 함께하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장을 위한 특별 세미나, 학교예술교육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의 총체적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전국 학생오케스트라·학생뮤지컬·예술동아리 페스티벌(가칭),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등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부 학교예술교육사업의 중심이 되는 학생오케스트라 사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의 만남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는 대외적으로도 크다. 모쪼록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이 의적 규모의 확대 뿐 아니라 사업의 질적 향상과 내실을 다지고 보다 전문적이며 섬세한 운영을 바탕으로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이에 동참하는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나아가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예술활동이 주는 행복을 전하는 전령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재개발원 MOU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MOU 체결 MOU wi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지난 3월 27일 수요일 오전에 서울대대 인재개발원의 학·관 교류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회참여 활동확대 등 양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음악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기관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시설 활용 등 적극적 상생협력 도모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수료식'에 관악전공 금관5중주가, 4월 22일 '83기 신입리더 입교식'에는 기악전공 트리오 두 팀이 참여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서울시교육청 MOU

서울대학교 -서울시교육청 MOU | 서울학생 행복교육 사업 추진 계획 MOU with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지난 3월 5일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은 '서울학생 행복교육 사업 추진 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상호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진로 및 창의 체험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이 사업은 공과대학, 자연대학, 음악대학 등 재능을 가진 각 단대의 특성과 멘토링을 원하는 멘티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짜여졌는데 음악대학에서는 연주회를 통한 재능기부가 지난 7월 11일 이루어졌다. '사제동행 행복 나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연주회에는 오연천 총장과 문용린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윈드앙상블의 연주와 김영률 학장의 지휘로 뮤지컬의 명곡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빛을 발했다. 특히 피아노 협연에 아비람 라이케르트 교수와 서울대학교 남성중창단의 출연으로 열정의 클라이막스의 무대가 멋지게 마무리 되었다. 초대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학생 1,000여명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2학기에도 이루어질 또 한 번의 무대를 기다리며 두 기관의 협력이 알찬 결실을 맺길 기대해본다.

대학탐방 현장체험학습

University-Campus Tour Field Trip 부산예술고등학교 서울음대 탐방 스케치

2013년 4월 10일 수요일에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음대를 방문하였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 은 세 번째 방문이었지만 부산에 있는 모교에서 서울까지 견학을 온 후배들이 너무나 반가운 마음은 여전하였다.

학생들이 방문하여서 즐거운 첫 시간은 음악대학 성악과 연주수업을 청강하는 것이었다. 수업 장소 인 콘서트홀에 들어선 후배들은 하나같이 기대에 가득 찬 눈을 반짝이면서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연주에 열심히 귀 기울였다.

수업이 끝난 바로 그 장소에서 부산에 고 출신 선배들이 우리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후배들과 의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예상했던 학생들의 질문 대다수는 입시에 관한 것이었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후배들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쏟아지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항상 시절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가끔 이런 진지한 분위기를 한기 시키는 영특하고 재치 있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꽤 오랜 시간대 화를 나누며 우리들은 첫 만남의 어색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같은 고학 출신 선배 사이로 더욱더 돈 독해졌다. 선배인 우리들도 후배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후배들도 견학 프 로그램 중 가장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즐거운 학교 견학이었다. 우리는 음악대학 주변을 간단하게 둘러보고, 서울대 학교 학생회관에 둘러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식사 후에는 그층에 마련된 기념품점에 둘러 학생들에게 쇼핑할 시간을 주었다. 도란도란 모여서 기념품들을 구경하고 숙라도 펴고 장난치며 노 는 학생들을 보니 나의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기념품점을 끝으로 우리는 후배들을 담임선생님께 넘겨드리고 남은 수업을 미처 들으려 음대로 돌아 와야 했다. 후배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니 잠깐 만남지만 그래도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들어 섭섭하 기도 했다. 남은 수업을 잘 마치기를, 또한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선배배 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글 | 김승현(성악·12, 부산에고 졸업생)

시흥시 청소년 사업



음악대학 - 시흥시 '음악 멘토링 사업' Adolescent Service of the City of Si-Heung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시흥시 음악 멘토링 사업'이 지난 4월 1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 27일까지 1학기 과정이 현재 성 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음악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학생들에게 서울대 음대생들로 이루어진 멘토들은 주말마다 시흥시청을 찾아 학 생들에게 개인 악기 레슨을 비롯해 6월부터는 오케스트라 합주 시간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악기 교육뿐만 아니라 협동심 및 다른 사 람들과의 조화, 단체생활 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69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오케스트라는 현재 시흥시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 탈락한 1명을 제외한 68명의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출석하여 악기 연주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며 김영률 학장을 비롯한 기악과 최은식 교수, 최경환 교수, 지휘전공 김덕기 교수 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음대 멘토들 역시 매주 토요일 아침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본교 김영률 학장과, 최은식 교수, 김윤식 시흥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을 참관하고 2달여의 짧 은 기간 동안 배운 실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합주 실력에 감탄하였으며 시흥시 김윤식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멘토링 사 업 오케스트라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비치기도 하였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이번 해 12월 시흥시와 서울대에서 클래식 소품, 영화음악, 크리스마스 캐럴 등으로 구성된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연주회를 끝으로 1년간의 사업을 마무리 한 후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통 해 시흥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관악구민과 함께하는 화요음악회

1994년 '수요음악회'의 명칭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예술공연 행사로 음악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2013년 1학기 화요음악회는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모두 5차례 매주 화요일 오후4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4월 9일 첫 무대는 일본 전역의 도시를 돌며 리사이틀을 개최해 오고 있는 사쿠라 색소폰콰르텟이 맡았다. 이날 공연은 마츠오카(D. Matsuoka)의 《사쿠라Sakura》와 비제(G. Bizet)의 《카르멘 환상곡Carmen Fantasy》, 포레(G. Fauré)의 《돌리 모음곡 Dolly suite Op.56》, 알랭 베르노(A. Bernaud)의 《색소폰 4중주》가 연주되어 관객들에게 봄날에 활짝 핀 벚꽃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었다.

4월 30일은 SNU 목관 앙상블의 무대로 윤혜리 교수와 피아니스트 허정화가 협연하였다. 피에르 두보아(P. M. Dubois)의 《플룻을 위한 4중주 제1번Quatuor pour flûte No.1》과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c단조 K.388》, 도플러(F. Doppler)의 《두 대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리골레토 환상곡 Op.38》, 피아졸라(A. Piazzolla)의 《플룻과 마림바를 위한 탱고의 역사Histoire du Tango for flute and marimba》 1악장, 카스테레드(J. Castèrède)의 《Flûtes en Vacances》가 연주되었다.

5월 7일에는 본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가야금 앙상블 '사계(四界)'(송정민, 황선영, 윤도희, 이지언)와 학생오디션 우승팀 'Lai Trio'(박경선, 박예린, 전희조)의 무대로 꾸며졌다. '사계'는 장영규 편곡 《새타령》, 이동준 작곡 《로망스 탱고》, 양승환 편곡 《Waltz for Debby》, 김대성 작곡 《호호굿》을 선보이며 가야금을 통해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인 감수성을 조화시킨 소리를 들려주었다. 또한 'Lai Trio'는 재즈와 클래식, 집시, 브로드웨이 스타일이 어우러진 쉐펠드(P. Schoenfield)의 트리오 소나타 《Cafe Music》로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5월 21일에는 독일 데트몰트대 교수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알렉산더 게버(A. Gerbert)와 피아니스트 안나 코키희(A. M. Kokits)의 듀오 리사이틀이 개최되었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유럽전역에서 많은 듀오 연주를 해오고 있다. 이날 공연은 슈만의 《환상소곡집 Op.73》과 바인버그(M. Weinberg)의 《소나타 제2번 Op.63 C장조》, 드뷔시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마르티누(B. Martinu)의 《소나타 제1번 H277》이 연주되었다.

5월 28일 마지막 화요음악회는 피아니스트 조영현의 독주회로 막을 내렸다.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국제 콩쿠르 입상 및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경력을 지닌 조영현은 현재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공연은 하이든의 《소나타 c단조 Hob.XVI:20》, 리스트의 《발라드 제2번 b단조》, 바흐의 《샤콘느 d단조 BWV1004(부조니 편곡)》, 메시앙(O. Messiaen)의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Vingt regards sur l'enfant-Jésus》 중 1, 2, 9, 10, 11, 13번이 연주되어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4월 9일 사쿠라 색소폰콰르텟 ▶



5월 7일 가야금 앙상블 '사계'



5월 7일 학생오디션 우승팀 'Lai Trio'

Tuesday Concerts

The Tuesday Concert Series of the first semester of 2013 successfully held its concerts with the contribution of many qualified and outstanding individuals and groups. The participating teams include Sakura Saxophone Quartet, SNU Woodwind Ensemble, Gayageum Ensemble 'Four Seasons', the winning group of the student concert "Lai Trio". The concert program was all the more enriched by some eminent professional musicians who are currently active, such as the duet of cellist A. Gerbert, and Pianist A.M. Kokits, and solo performance of pianist Young-Hyun Cho. The Tuesday Concert Series of this semester was held five times, from April 9th to May 28th in the Mid-Auditorium of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at four o'clock.



5월 28일 피아니스트 조영현 독주회



5월 21일 알렉산더 게버 & 안나 코키희 듀오

희망과 감동의 음악_ 병원음악회

지난 5월 24일, 최은식 교수와 성악과 남성중창단을 비롯한 음악대학 학생들은 혜화동 서울대 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의 음악회는 특히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고려하여 암 병동과 본관 로비 두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월터스(H.L. Walters)의 《Instant Concert》, 펜스타드(E.A. Fenstad)의 《Stein Song》, 베르디의 《La donna e mobile》, 푸치니의 《Nessun Dorma》, 《향수》와 같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들과 《추천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 단조 BWV 1043》 등과 같이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곡들로 어우러져 다채롭고 풍성한 연주회가 되었다는 평을 얻었다. 연주회 시작 전부터 공연장은 몰려드는 인파로 분주했으며, 기획을 담당한 의과대학의 양한광 교수와 김영률 교수(음악대학 학장)도 직접 참석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오랜 투병기간과 제한된 병실 생활로 인해 쇠약해진 환자와 그들을 간호하는 보호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에 작게나마 기쁨과 활력소를 얻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며 그 감동을 전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김정은씨는 “병원음악회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의료진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밝혔고, 재활의학과 의사 이재욱 선생은 “장기 입원 환자들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마음의 병도 함께 얻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음악회를 통해 잠시나마 그들이

Hospital Concerts

Last May 24th, students of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i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NUH) in Hye-hwa to comfort and console vulnerable and hurt souls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and to revive their spirits. The Hospital Concert Series is held every semester for three times in different locations, SNUH in Hye-hwa, SNUH in Bundang, and SNU Boramae Medical Center. The program of the day's concert included pieces popular and well-known to the general public, like H.L. Walters's 《Instant concert》, E.A. Fenstad's 《Stein Song》, Verdi's 《La donna e mobile》, Puccini's 《Nessun Dorma》 from the opera 《Turandot》, and 《Homesick》, and also the works that are regarded as highly artistic and refine, like 《Chuchunsa》 and J.S. Bach's 《Concerto for Double Violins in d minor, BWV 1043》. The program was much favored by the audience and many reported the positive effects the Hospital Concert exert on patients.

휴식과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 라고 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연주에 참여한 Belsuono 남성중창단의 김승직(성악·09)학생과 김현수(성악 석사·09)학생은 “병원음악회와 같은 재능기부를 통해 환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라고 전했다.

클래식 음악이 생소한 이들을 위해 음악대학 기악과 최은식 교수(비올라 전공)가 직접 사회를 맡아 작품 해설을 하였으며, 연주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들의 굳었던 얼굴에 점점 웃음이 번지고 생기가 돋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행했던 보호자들도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던 보람된 시간이었다.

서울대음대가 주관하고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병원음악회 시리즈는 매 학기 서울 보라매병원, 혜화동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세 곳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보라매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음악회는 각각 5월 21일과 6월 14일에 진행되었으며, 참여하는 음악대학 학생들은 기악과 최은식 교수의 지도아래 환자들을 위한 음악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주를 준비하며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우가고 있다. 준비하는 이들과 관객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병원음악회의 다음 연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글 | 스노버 고윤(작곡이론·10)





퇴임교수 성악과 강병운 교수

Interview of Retiring Professor: Prof. Emeritus Philip Kang

Prof. Emeritus Philip Kang, who had served and dedicated himself in raising and training young musicians of the next generation in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1995, has come to retire this year. In 1988, Prof. Kang honorably became the first Asian Musician to enter Bayreuth Festspiel, the mecca of Wagner's operas, and was chosen as the singer of the year. He was a globally renowned bass who stood in parallel with the best artists of the time, such as Daniel Barenboim and Giuseppe Sinopoli, and performed in most desirable stages of the world, like Royal Opera House in London's Covent Garden, United Kingdom, and Wiener Staatsoper, Austria.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던 강병운 교수는 올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 강병운 교수는 지난 1988년 바그너 오페라의 성지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동양인 최초로 입성하였고, 그 해 최고의 가수로 선정되었다. 그밖에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가든, 오스트리아 빈슈타츠 오페 등 세계 정상의 무대에서 다니엘 바렌보임, 주세페 시노폴리 등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공연했던 세계적인 베이스이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국립오페라단 《돈 카를로》(필립 역) 공연을 통해 국내 오페라 관객들과 처음 만났다. “그 순간의 긴장과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페라 가수로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 가수임과 동시에 장인을 길러내는 교육자인 그는 가르쳤던 제자들이 세계 정상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제자 공병우(로드리고 역)와 함께 앞서 말씀 드렸던 오페라 《돈 카를로》 무대에 섰습니다. 사제시간이 아닌 동등한 오페라 가수로서 한 무대에 섰을 때 이제 비로소 오페라 가수로서, 오페라 가수를 길러내는 교육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세계 정상의 무대에 오르는 오페라 가수이자 교육자이기도 한 그는 근래 들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음악을 하는 음악가 집안으로 조명 받고 있다.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새삼스럽지만, 제 아내도 제가 유럽에 진출할 당시 함께 그곳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피아노를, 둘째는 첼로, 셋째는 알려진 대로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어린 막내도 처음엔 피아노를 시작했었지요.” 음악가 집안의 장점을 묻자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입니다. 각기 전공 악기는 다르지만 클라라를 비롯한 가족 모두 각자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긴 연습 시간의 고충, 연주 전의 긴장감, 그리고 컨디션 관리와 같은 음악가로서의 생활 전반을 모두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연주나 연습 후에 서로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겠군요. 이것은 가족 모두가 음악을 전공함으로써 가지게 된 매우 소중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와의 긴 싸움과 끊임없는 연습에 몰두합니다. 크고 작은 연주를 통해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실망스러운 연주 속에서도 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장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이끌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은 하늘이 주는 재능입니다. 하늘이 주는 재능은 결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모두 건실한 음악가로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많은 고민 끝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지난 4월 국립오페라단의 작품 《돈 카를로》를 통해 오랜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감사하게도 반응이 좋아 10월에 대구에서 《돈 카를로》를 다시 한 번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주를 다시 본격적으로 하게 될 지는 잘 모르겠군요.”라며 퇴임시기에 맞춰 오페라를 준비하느라 퇴임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소박하게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다.

세계 무대를 사로잡는 오페라 가수 필립 강이자 긴 세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몸담으며 훌륭한 제자를 길러냈던 강병운 교수, 앞으로 보다 자유롭게 소박하게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그의 따뜻한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그의 삶을 기대해 본다.

신임교수 국악과 김우진 교수

Interview: Prof. Kim, Woojin New Professor to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I visited Prof. Kim, Woojin the new professor in music theory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to congratulate his appointment. Prof. Kim had been a member of the Seoul Metropolitan Music Orchestra as a Geomungo player, held the position as a professor and taught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finally came back to SNU, the school of which he was once a student, as a professor this time. He is also the grand winner of the twelfth Nangye Festival, and he now concentrates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rumental Music Study. Prof. Kim demonstrates the fullest dedication in educating his students, with the hopes of raising and producing the country's leading musicians. I expect much and look forward to seeing the fruits and positive effects that his educational philosophy of walking with the students and teaching in the students' perspective will produce in the Korean Music field.



촉촉한 봄비가 내리던 지난 5월 27일, 서울대 국악과(국악이론)로 부임하신 김우진 교수님을 찾았다. 김우진 교수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거문고연주자), 전남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올해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또한 제 12회 난계악학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또한 한국의 악학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뜻한 국화차와 함께 국화 향처럼 은은한 미소로 맞아준 그에게 먼저 신임교수가 된 소감을 물었다. “기쁘고 즐겁죠. 교수가 되기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모교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망이자 나의 로망이기도 해요. 모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싶은 욕심, 좋은 제자를 기르고 싶은 욕심은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아주 즐겁게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2살에 국악사 양성소에 입학함과 동시에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어렸을 적 제 고향인 강원도에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는 것 말고는 접할 수 있는 음악적인 환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께서 국립 국악원에서 장학생을 모집해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서울로 보내셨죠.” 그렇게 그는 국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연한 계기로 국악에 입문하게 된 그는 곧 음악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었다. “학창시절 새로운 고악보나 서적을 찾게 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책을 밤새도록 탐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안에는 물론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처음 보거나 모르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밤을 새워 탐독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음악에 대한 즐거움 때문이었겠죠? 즐거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밤새운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는 그에게 있어 음악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관한 조언을 구하자 그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능력은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은 예전보다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저의 학창 시절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국악학 연구회를 조직해서 새로운 고악보를 찾아서 영인을 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발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학생들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론과 작곡 분야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그는 중요 무형 문화재 16호인 한갑득 선생님의 거문고 산조를 이수한 공식적인 7인의 제자 중 한 사람답게 연주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교시절 전공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 몇 명을 불러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4년 다니는 동안에 적어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올인 한다고 해야 하나?



그 학생들은 다른 교양과목 수업도 거의 빼먹고,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이 아까워 도시락을 싸오고, 연습실에 새벽 5시에 들어가서 저녁 10시에 수위 아저씨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연습실에서 나오지 않는 등 ‘올인’하는 과정을 4년 동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거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은 자기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각 대학이나 연주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느냐 얼마나 같은 것을 반복 학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한 번쯤은 자신의 분야에 올인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그의 철학에 대해 묻자 그는 “철학을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나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대학에 몸담아 오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개개인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각자의 수준에서 얼마만큼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 등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교수로서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라며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교수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모교의 교수가 되어 자신의 로망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우수한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은 국악인이자 교수인 김우진. 앞으로 그의 교육 신념과 희망이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한국 국악계에 끼칠 지대한 영향을 기대해본다.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 국악과 김승근 교수

Interview: Prof. Kim, Sngkn (Korean Music), The winner of Yumin Awards

Prof. Kim, Sngkn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announced as the winner in cultural category of 2013 Yumin Awards on the third of the last month. Yumin Awards is organized and funded by Yumin Cultural Foundation to promote creative talents in Korean Society. Prof. Kim, who is also the organizer of Tongyou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IMF), sent a message to those music-pursing students that tradition is not something to be followed, but to be created.

국악과 김승근 교수가 지난 3일 유민문화재단 주관 2013년 <홍진기 창조인상>의 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과학, 사회, 문화의 세 분야를 대표하는 심사위원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룩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한다.

유민문화재단 관계자는 “김승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과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꾸준히 이끌어 온 점과 축제 기획자 및 행정 총감독으로서 창조적 성취를 높이 샀다”고 말했다. 2002년 이래 매년 3월 말에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한 축제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다음은 수상 소감과 더불어 김승근 교수와의 인터뷰이다.)

먼저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공로보다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앞으로의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여, 제가 맡고 있는 창작분야에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머님께서 성악을 전공하셨고, 세 아들 중 하나는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로는 한국인으로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데 대한 한계성을 알고 계셨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요. 한국음악은 한국에서만 잘하면 이미 세계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권유로 거문고를 배우게 되었고, 그때 거문고를 즐겁게 배운 경험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음악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합니다.

85년에 서울대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는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중해서 공부만 하기에는 좋지 않았던 분위기였지요. 87년에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달했고, 저 역시도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에는 국악작곡 전공이 없었고, 외국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

었기에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는 요즘처럼 쉽게 외국문화를 접할 수 없었기에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컸죠. 유학생들은 저로 하여금 외국의 문물을 배우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그 지식과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그것을 전통문화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생산적인 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유학 시에 윤이상 선생님과도 인연이 있으셨죠?

처음에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음악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헝가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서 바르톡 같이 민족 고유의 색채를 음악에 담아내는 데 능한 작곡가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헝가리의 탁월한 음악적 능력에 비해, 그 나라의 경제적인 한계로 연주의 레퍼토리가 늘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것을 경험 하려는 저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베를린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독일로 간 1991년에는 윤이상 선생님이 생존하고 계셨는데요. 당시는 북한에 다녀온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위험하게 생각했던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음악과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윤이상 선생님을 한번은 봐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1992년 윤이상 선생님을 뵈고서 세계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고, 한국음악의 객관화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통영국제음악제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독일 유학 중에 도나우에싱겐 음악제를 가게 되었습니다. 9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음악제여서 꽤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저의 예상과 달리 매우 작은 도시에서, 제대로 된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음악제를 진행하더군요. 그곳은 베토벤, 모차르트 등 기존에 검증되어 있는 작품들을 연주하는 곳이 아니라 공연 몇 년 전에 위촉한 새로운 창작된 곡들을 세계 초연하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도나우에싱겐 음악제처럼 한국에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음악제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통영은 좋은 먹거리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제반 조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음악의 내재적 가치를 전달하는데 제가 톨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더불어 통영국제음악제가 지방음악제의 선두주자가 된 셈이지요.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현대음악 공연들을 일정 기간에 모아 연주하게 되니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라는 현대음악의 판을 만들고 윤이상 선생님의 작품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윤이상을 찾는 것 역시 통영국제음악제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50년대에 윤이상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기회를 받았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작곡가 윤이상이 받았던 ‘도움’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직 음악적 역량이 부족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작곡가를 찾아내고, 우리가 그에게 시기 적절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10년 뒤, 20년 뒤 그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윤이상’이 될 것입니다.

음악제의 시작과 더불어 계획되었던 통영국제음악당이 지난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통영시로서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한 아시아에서 클래식과 현대음악에서만큼은 통영이 무시 받지 않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강석희 교수님께서 한국형 미사일이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가치란 미사일에 초가집이나 삿갓을 씌운 것처럼 일차원적인 개념은 아닐 겁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세울 때 파리문화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에펠탑은 그저 쇠조각일 뿐, 그 어떤 전통적 가치도 들어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펠탑이 새로운 아이콘이 되어 현재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 세대의 한국을 표현해줄, 지금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이러한 박자는 우리 음악에 없어요. 전통음악에서는 없던 박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통이 담겨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리듬이 된 것이죠. 한국음악계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100년의 역사도 안 되는 탱고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것처럼 설령 그것이 100퍼센트 전통적이지는 않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고 좋아할만한 것이라면 바로 거기에 한국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 한국적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국제적인 규격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점점 더 답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외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듯이, 국제사회와 소통이 많은 지금 시대에는 문화의 국제성을 먼저 고려할 때, 도리어 한국적 특징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후학들에게 조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통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전통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지요. 특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의 필요에 맞춰 전통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한국음악 전공자의 임무였다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존은 보존대로 하되, 그 위에 자신의 해석을 얹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엄청난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방법론과 방향성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한국 교육이 획일의 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학문과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만큼은 독창적 사고와 창의성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가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윤덕우-최덕자 음대기금

우리대학 기악과 관악전공(플룻) 부교수로 재직 중인 윤혜리 교수의 양친께서 지난 4월에 음악대학으로 소중히 발전기금을 출연하였다. 이 기금은 총 1억원의 '윤덕우-최덕자 음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음악대학의 학술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김귀현, 이명현 교수 부부,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이명현 철학과 명예교수(철학과 64졸업)와 김귀현 기악과 교수(기악과 69입학) 부부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500평 상당의 전원주택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했다. 이 교수 부부는 퇴임 후 머물러 온 소중한 주택이 보다 가치 있게 쓰일 방법을 고민하다 모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는 오연천 총장을 비롯 변창구 교육부총장, 홍기현 교무처장, 이재영 학생처장, 성노현 연구처장, 허남진 기초교육원장, 배영수 인문대학장, 김영률 음악대학장 등 교내 주요 인사 및 이명현 교수와 김귀현 교수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현-김귀현 학술기금을 설립하는 기부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명현 교수가 기부한 전원주택은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교수가 손수 '우죽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이교수 부부의 뜻에 따라 주택을 서울대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세미나, 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음대 김동수 교수, 발전기금 출연

서울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는 성신여대 음대 김동수 교수가 우리대학에 발전기금을 출연하였다. 1,000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은 음악대학의 각종 학술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플루트 전공)하였고 동아콩쿠르 실내악 부문 1위 수상 및 강남심포니, 충남도립, 성남시향, 포항시향, 루마니아 국립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지휘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현재 금파플루트앙상블 상임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3 상반기 발전기금 출연자 (2013. 3. 1 - 8. 31)

(단위: 원)

출연자명	납입일자	납입금액	지원학과	기금용도	기금명
김지윤	13. 3. 4	1,000,000	국악과	학술연구시설등	
전상직	13. 3. 15	50,000	작곡과	학술연구시설등	
한국자산신탁(주)	13. 3. 20	5,000,000	성악과	학술	오페라기금
김영욱	13. 3. 21	2,000,000	음악대학	학술연구시설등	
김동수	13. 4. 1 약정	10,000,000	음악대학	학술연구시설등	
전용명	13. 4. 5	500,000	기악과	학술연구시설등	관악전공기금
최희연	13. 5. 1	2,000,000	기악과	학술	피아노전공기금
김규동	13. 8. 16	300,000	작곡과	학술	
이돈응	13. 8. 16	600,000	작곡과	학술연구시설등	
이신우	13. 8. 16	300,000	작곡과	학술연구시설등	
최경환	13. 7. 17	500,000	기악과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윤덕우 최덕자	13. 4. 29 약정	100,000,000	음악대학	학술연구시설등	윤덕우-최덕자 음대기금
풍강산업(주)	13. 8. 14	600,000	작곡과	학술연구시설등	
송경희	13. 7. 25	300,000	국악과	장학	송경희 장학금
	13. 6. 27	100,000	기악과	시설물	
김미영	13. 7. 26	400,000	기악과	시설물	

**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1006-601-280134

•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 음악대학 또는 특성학과를 지정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연주와 개성이 담긴 음악적 표현

첼로 전공 실기 / 백청심 교수



레슨 중이었던 이태인(기악과 석사 첼로전공 · 11)학생에게 잠시 대학생활과 전공실기 레슨의 병행에 관한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대학 때보다 고등학교 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레슨을 받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학 때도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늘 편안하게 해주셔서 음악을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마스터 클래스에서 외국인 선생님들은 음악적인 표현력에 중점을 두시는데, 교수님은 특히 소리 내는 방법, 오른손, 왼손 테크닉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연습을 하면 어려웠던 부분이 쉽게 해결되거든요.”

자기가 전공으로 택한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특히 악기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기초실력입니다. 항상 갖고 닦는 기초적 훈련을 중시할 때 자연히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색채와 완성된 연주를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훈련으로 졸업 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학생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는 백청심 교수. 첼로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예술적 표현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선배 연주자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하였다.

인터뷰 · 글 | 김소이 (작곡이론 석사 · 11)

Cello (Instrument) / Prof. Chung sim Baik

Cello(Instrument) is the lecture in which students learn practical techniques and ripen in expression through immediate and mutual share of musical inspi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instructor. Prof. Chung sim Baik, the instructor of the course, says she feels most rewarding when she sees enormous progress of a weak-performing student and her primary and most important rol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music on their own and complete the performance by maximizing the ability to express emotion.



늦은 봄, 초여름 날씨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백청심 교수의 ‘첼로 전공 실기’수업을 찾았다. 음악대학에서 다른 단과대학과 차별화된 수업 중 하나는 선생님이 일대일로 학생을 가르치는 전공 실기 수업일 것이다. 전공 실기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음악적인 교감을 나누며 예술적 기교를 익히고 연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가는 수업이다. 이것은 전문 연주자를 꿈꾸는 연주 전공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할 과정이다.

백청심교수(기악과)는 일대일 수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생들이 각기 다르게 지니고 있는 음악적 잠재력을 파악한 후 연주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지도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적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려는 학생의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음악적 기교와 해석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닦아가게 되니 이런 면에서 다른 대형 강의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故 조현진, 전봉초 교수 그리고 앙드레 나바라(Andre Navarra)에게 사사한 백청심 교수는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신 선생님들을 만난 행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지난날을 회상하였다. “내 제자들이 졸업 후 긴 세월이 지나도 대학 재학 때 나와서 추억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겠지요.”라는 말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현 상 속 의 체 계

음악의 원리 / 전상직 교수



Elements and Structural Principles of Music / Prof. Sangjick Jun

The lecture "Elements and structural Principles of Music" aims to cultivate artistic knowledg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nature, meaning, expression method, and elements of music. The lecture specifically starts out from the nature and meaning of music, and inquires major principles in music in the order of the rhythm, tuning system, harmony, tonality, structure and form. This lecture has consolidated itself as a class that offers exemplar guideline in how to listen and understand music for students who want to deepen their artistic refinement, and provides concrete ground knowledge for those who want to solidify their major knowledge.



전상직 교수가 진행하는 ‘음악의 원리’는 작곡과 개설 문학과 예술 분야 교양강좌로 음악의 본질적 속성, 의미, 표현 방법, 요소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은 음악의 속성과 의미에서 출발하여 리듬과 조율체계, 화성과 조성, 구조와 형식의 순서로 한 학기 동안 음악의 원리를 탐구한다.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와 함께 각각의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음악 실례들을 제시한다. 또 학기 중반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도 한 차례 마련되어 있어 색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의실에서는 비전공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강의를 수강한 최수현(영어영문·12) 학생은 “음악적인 지식과 감상법이 궁금해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히며 “수업 내용 중 화성 부분이 비전공생에게 특히 어려웠지만, 실제로 들으며 배운 개념을 적용해보는 것이 재미있고 좋았다”고 말했다.

또 음대생으로서 이 강의를 수강한 한대규(비올라·11) 학생은 수업의 장점으로 “전공을 하며 이론적으로는 몰랐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며, “열정이 넘치는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배울 점이 매우 많았다”고 수강 소감을 전했다.

‘음악의 원리’ 수업은 다소 방대하고 다루기 어려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잘 꾸며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은 음대 학생들에게도 열려있어, 교양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음악을 이해하고 듣는 방식을, 단순히 교양을 넘어 자신의 전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확고한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해주는 인기 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대학 복수전공 현황

Issue: Double Major Status Report

최근 대학에서의 복수전공을 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늘어나고 있는 음악대학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집중적인 훈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악대학 학생들이 커리큘럼 상의 어려움을 딛고 타 단과대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음악전문학교(conservatory)가 아닌 종합대학(university)에 속한 서울음대의 이점을 심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대학 학생들이 복수 및 부전공을 신청하는 분야는 대체로 다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단과대별로 생활과학대학(9명), 사회과학대학(7명), 경영대학(6명), 인문대학(5명)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음악대학 내부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비롯한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복수전공 하는 사례(5명)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세부전공별로는 소비자동학부(8명)가 가장 많았으며, 경영학과(6명)와 언론정보학과(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동학부의 경우, 음악의 교육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에서 전공을 살려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김명혜(작곡이론·10) 학생은 복수전공 동기에 대해 “문화산업 분야 진출을 목표로 관련 학문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음악공부와는 다른 방식이 낯설고 어렵지만, 새로운 경험과 다른 전공의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는 점”을 복수전공의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흔치 않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한서윤(작곡이론·10) 학생은 “미술사를 공부함으로써 넓은 시각과 다양한 관점에서 음악과 미술 분야를 연계하여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표현 방식이 다른 두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흥미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음악대학 학생들이 비단 음악가뿐만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관심사를 살려 여러 사회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일 것이다. 앞으로도 음악대학 학생들의 복수전공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활발한 진로 탐색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음대생 복수 및 부전공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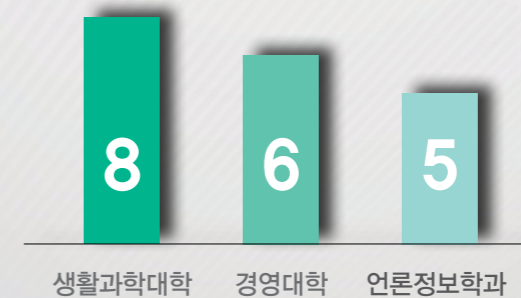
(2011학년 전기 ~ 2013년 전기)

	2011(전기)	2011(후기)	2012(전기)	2012(후기)	2013(전기)	합 계
복수전공	3	8	7	9	2	29건
부전공	-	1	-	3	-	4건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국악과	합 계
복수전공	3	4	11	11	29건
부전공	-	2	1	1	4건



음대생 복수 및 부전공 분야



최다 전공 (1위 ~ 3위)

Bravo, Prize Winner! 2013년도 1학기 입상자

성악과

제5회 세일가곡콩쿠르 1위
제11회 화천 비목콩쿠르 1위
제12회 국립오페라단콩쿠르 은상

김승직(09)-졸업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은상
강원미래인재 선발
음악저널 콩쿠르 대상
신영옥 성악 콩쿠르 금상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위
대구성악콩쿠르 최우수상
개천예술제 최우수상
제22회 KBS*KEPCO 콩쿠르 금상
오페라 미술피리, 라트라비아타, 라보엠 출연

기악과_ 피아노 전공

제39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최형록(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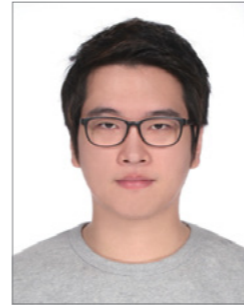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위
한국일보 음악콩쿠르 3위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 2위
우인아트홀 음악콩쿠르 1위
제39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기악과_ 관악 전공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5중주부문 2위

정태진(08)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Hamamatu Music Festival (Frits Damrow)
동아음악콩쿠르 2위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오중주 2위
린덴바움페스티벌 수석, 부천필하모닉 객원수석
서울대학교 재학 중

국악과

제40회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김태희(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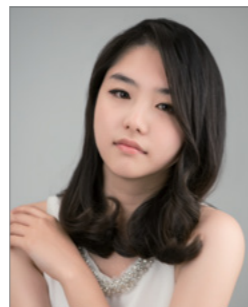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수료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제40회 남원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수원대,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출강

2013 서울국제음악콩쿠르 3위 **김정훈(09)**



2011 CBS 전국학생콩쿠르 대상
2011 동아음악콩쿠르 3위
2012 제38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이탈리아 부세토 베르디국제콩쿠르 1위

제16회 한국소팽콩쿠르 1위 **박연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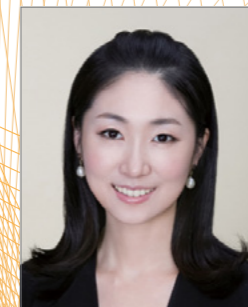
한국 리스트 콩쿠르 2위
Music in the Mountains Festival Young Artist Competition Grand Prize and Performance with Music in the Mountains Festival Orchestra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Chopin Scholarship Competition First Prize
제16회 한국소팽콩쿠르 1위
제31회 금호 영아티스트 오디션 합격
제32회 해외파견 음악콩쿠르 3위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1위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5중주부문 2위 **최유덕(11)**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 (지휘 금난새)
서울대 음대 관악동문콩쿠르 Trombone 1위
2013 제 8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오중주 2위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3학년 재학 중

제22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우륵대상 **이수진(06)**



서울대학교 음악박사
제9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제22회 고령가야금 전국대회 일반부 대상
단국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목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원 강사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서울예술평생교육원 강사

작곡과

제5회 카잘스 국제 작곡
콩쿠르 우승

김새암(석사)



부산 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사사, 이신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작곡과 수료
제73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출연(2010)
창악회 작곡 콩쿠르 우수상 수상(2010)

기악과_ 현악 전공

Novosibirsk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1위 **하유나(10)**



예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전체 수석입학 (전액 장학금)
동아 음악 콩쿠르 2위
금호 영재 및 영 아티스트 독주회(금호아트홀)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2013년, 지휘: 임한정)

제32회 해외파견콩쿠르
Bassoon부문 1위

홍유진(12)



서울대학교 기악과 관악전공(Bassoon)
2학년 재학 중

2013년도 1학기 콩쿠르 입상자

성악과		
소프라노	김은희(05) 석사졸업	이탈리아 Riccardo Zandonai 국제콩쿠르 1위
	박주현(10)	제18회 음악춘추콩쿠르 여자 대학부 1위 제19회 수리음악콩쿠르 여자 대학부 2위
	이명현(석)	2013 서울국제음악콩쿠르 4위
테너	김승직(09) 학사졸업	제5회 세일가곡콩쿠르 1위 제11회 화천 비목콩쿠르 1위 제12회 국립오페라단콩쿠르 은상
	김정훈(09)	2013 서울국제음악콩쿠르 3위
	이재명(10)	제39회 중앙음악콩쿠르 성악 남자 3위
	성호병(10)	제18회 음악춘추콩쿠르 남자 대학부 2위
바리톤	안정민(11)	제18회 음악춘추콩쿠르 남자 대학부 3위
작곡과		
작곡	김새암(석)	제5회 카잘스 국제 작곡 콩쿠르 우승
	공혜린(석)	제45회 서울창작음악제 실내악부문 입선
	신은지(석)	제45회 서울창작음악제 실내악부문 입선
	강효지(박)	2013 서울문화재단 신진예술가 (MAP) 선정 9월 뉴욕 덤보 페스티벌 참가작<Metamorphose> 선정
기악과		
피아노	곽지향(10)	제39회 중앙음악콩쿠르 3위
	박연민(10)	제16회 한국쇼팽콩쿠르 1위 제31회 금호 영아티스트 오디션 합격 제32회 해외파견 음악콩쿠르 3위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1위
	박희민(10)	제6회 베토벤콩쿠르 1위
	최형록(12)	제39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배필호(11)	제16회 한국쇼팽콩쿠르 3위
	소한경(13)	2013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 부문차상 제8회 영산음악콩쿠르 1위
	김도현(13)	제16회 한국쇼팽콩쿠르 2위
	김민준(12)	제32회 해외파견음악콩쿠르 3위
	홍유진(12)	제6회 베토벤콩쿠르 3위
	진혜선(11)	The 6 th International J.S.Bach Music Competition Grand Prize
	오지현(11)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 2위
	손아진(13)	Tel-hai The concerto Competition 1st Prize & Audience Favorite Prize

기악과		
바이올린	하유나(10)	Novosibirsk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1위
	강정은(12)	해외파견 콩쿠르 2위
	최예은(12)	부산음악콩쿠르 2위
플룻	장은정(11), 이경민(11), 한대규(11), 박새록(10), 박여원(11)	서울바로크합주단 실내악 부문 1위
	손예진(12)	제32회 해외파견콩쿠르 Flute부문 2위
바순	홍유진(12)	제32회 해외파견콩쿠르 Bassoon부문 1위 (목관부문 전체 1위)
	이성창(12)	제32회 해외파견콩쿠르 Bassoon부문 3위
호른	이지민(11)	제32회 해외파견콩쿠르 Horn부문 3위
	정태진(08)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5중주부문 2위
트럼펫	이수진(10)	제32회 해외파견콩쿠르 Trumpet부문 2위
	최유덕(11)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5중주부문 2위
트럼본	정종수(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Trombone부문 3위
국악과		
가야금	박다솜(10)	제33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동상 제11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산조부문 은상
	김도연(10)	제22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은상
	김철진(11)	제33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은상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금상
	추현탁(12)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동상
	이수진(박)	제22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우륵대상
	이서영(11)	제23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상
	황이레(09)	제11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창작부문 은상
	송정아(석)	제23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우수상
	정연주(석)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동상
	김한솔(09)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금상
해금	엄세형(09)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은상
	김영삼(12)	제33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금상
거문고	최지민(08)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은상
	김지선(석)	(사)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제2회 창작곡 공모
	김보현(박)	(사)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제2회 창작곡 공모
판소리	이진우(11)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동상
	김태희(박)	제40회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피리	김보들샘(10)	제33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은상
	박진형(석)	제29회 동아국악콩쿠르 은상
아쟁	김재훈(11)	제33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금상

교수동정

FACULTY ACTIVITIES

FACULTY ACTIVITIES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강병운 교수,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 《돈 카를로》에 필립포 2세역으로 출연

Prof. Philip Kang, played as Filippo II in 《Don Carlo》 shown in the Opera House of the Seoul Arts Center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2013년 4월 25일, 27일, 28일 공연된 오페라 《돈 카를로》에 필립포 2세역으로 출연하였다.

윤현주 교수, 제9회 서울국제콩쿠르에 심사위원장으로 위촉

Prof. Hyunjoo Yun, appointed as a judge of the ninth Seou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4월 19일~27일 개최된 제9회 서울국제콩쿠르에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5월 6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메조소프라노 윤현주 독창회를 통하여 섬세하고 풍부한 예술성을 선사하였다. 6월 23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Black Rock Church의 초청으로 Duo Recital에 출연하였다.

서혜연 교수, 평창스페셜뮤직페스티벌(PSMF) 기획운영위원 및 멘토 위원장으로 참여

Prof. Hye-Yeon Seo, participated in Pyeong-chang Special Music Festival as the chair mentor and committee member

이태리 파도바에서 4월 20일~27일에 개최된 Audizioni internazionali per Cantanti lirici finalizzate alla realizzazione della stagione에 초청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5월 29일 군산 예술의전당 개관기념 음악회 '오페라 여행'에 출연하였고, 8월 27일 중국 연변대 초청 독창회를 가졌다. 8월 6일~10일 평창스페셜뮤직페스티벌(PSMF) 기획운영위원 및 멘토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박미혜 교수, 프랑스 Academie Lyrique Festival에 초청

Prof. Mi-Hae Park, invited to French Academie Lyrique Festival

4월 23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밀알콘서트에 출연하였다. 5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Verdi Festival Gala Concert에 출연하였고, 7월 6일 프랑스 Academie Lyrique Festival에 초청받아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박현재 교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나비부인 핑커톤 역으로 출연

Prof. Hyun-Jae Park, played as Lieutenant Pinkerton in 《Madam Butterfly》 shown in Sejong Center for Performing Arts

예술의전당에서 5월 24일 열린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만토바역으로 출연하였다. 6월 7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나비부인 핑커톤 역으로 출연하였고, 6월 19일, 27일 판교 SK G-rium Hall에서 독창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7월 19일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오페라 라보엠 로돌포역으로 출연하였다.

연광철 교수, 독일 바이로이트 극장에서 오페라 '발퀴레' 훈딩 역으로 출연

Prof. Kwang Chul Youn, played as Hunding in the Opera 《Die Walküre》 held in Bayreuth Festspielhaus in Germany

독일 바이로이트 극장에서 5월 14일~22일 오페라 '발퀴레' 훈딩 역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5월 27일~6월 14일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린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페르난도 역으로 출연하였다.

FACULTY ACTIVITIES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정태봉 교수, 2013 4plus 정기연주회에서 《팀파니와 두 대의 마림바를 위한 '기도'》 초연

Prof. Tai-Bong Chung, premiered (Prayer for two marimbas and timpani) in the subscription concert of 4plus

지난 6월 18일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강석희음악연구소 제1회 '현대관현악의 밤'에서 정태봉 교수의 교향시(남해)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7월 2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4plus 정기연주회"에서는 정태봉 교수의 《팀파니와 두 대의 마림바를 위한 '기도'》가 초연되었다.

전상직 교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음악학 학술회의 초청 강연

Prof. Sangjick Jun, invited as a guest-speaker to the Musicology Conference in Mozarteum University Salzburg, Austria

세종체임버홀에서 3월 23일 열린 체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전상직 교수의 《"7"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가 연주되었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개최된 음악학 학술회의에서 '무조음악에서의 화성적 통일성', '3도 관계에 관한 논리적 해설'과 자신의 작품을 주제로 하여 강연을 하였다.

최우정 교수, 삶과 꿈 《챔버오페라》 싱어즈 2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위촉작(Three Songs) 초연

Prof. Uzong Choe, premiered (Three Songs) in the Chamber Opera 'Life and Dream' 20th year commemoration concert

"삶과 꿈 《챔버오페라》 싱어즈 20주년 기념 음악회"(일신홀, 4월 29일)에서 최우정 교수의 위촉작(Three Songs)가 초연되었다. 5월 17~18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ART& TECHNOLOGY PERFORMANCE 레플리카:REPLICA"와 5월 21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JOURNÉES GRAME 2013 - CONCERT TIMF ENSEMBLE MUSIQUES DE CORÉE"에서 음악감독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유중아트홀 《TIMF 앙상블과 함께하는 현대음악 입문 콘서트 "Open your Ears"》의 해설을 맡았다.

이돈웅 교수, 렉처콘서트 "소리를 빛다"에서 작품 발표

Prof. Donoung Lee, presented a composition in the lecture concert "Shaping sound".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5월 22일 열린 렉처콘서트 "소리를 빛다"에서 《피리와 리얼타임 DSP 프로세싱을 위한 '피리 II (Piri 2)》, 《첼로와 리얼타임 DSP 프로세싱을 위한 '소리(Sori)' version 2013》, 《오늘의 소리-현장에서의 소리와 센서를 이용한 즉흥적 소리》를 발표하였다.

김규동 교수, 2013 교향악축제에서 《관현악을 위한 무채색 원형》 초연

Prof. Gyoo-Dong Kim, premiered (Achromatic Archetype for Orchestra) in 2013 Korean Orchestra Festival

4월 4일 치악예술관에서 열린 "원주시립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그랜드 심포니 I"과 4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3 교향악축제"에서 김규동 교수의 《관현악을 위한 무채색 원형》이 초연되었다.

FACULTY ACTIVITIES

임헌정 교수,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SNU Symphony Orchestra' 지휘

Prof. Hun-Joung Lim, conducted SNU Symphony Orchestra in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3월 29일, 5월 3일)에서 지휘하였다. 4월 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마에스트로 임헌정과 함께하는 대학 축전의 밤'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브람스 《대학축전서곡》등을 연주하였고, 4월 30일에는 부천필하모닉 복사골 예술제 경축음악회 〈향수〉 및 5월 24일 부천필하모닉 정기연주회를 지휘하였다. 6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SNU Symphony Orchestra'에서는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지휘하였다.

김덕기 교수, 제36회 대구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에서 《나비부인》 지휘

Prof. Docki Kim, conducted in the 36th subscription concert of the Daegu Metropolitan Opera (Madam Butterfly)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4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연주된 대구시립오페라단 36회 정기공연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지휘하였고, 5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2013_11시 콘서트(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제2번》 등을 지휘하였다.

이석원 교수, 제14차 ICMPC 학술위원장으로 선임

Prof. Suk Won Yi appointed as the chair of Academic Committee of ICMPC

제14차 ICMPC[2014년 8월 4일~9일, 서울]의 학술위원장(Chair of Program Committee)으로 선임되었다. ICM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는 세계 40~50여 개국의 음악학자와 인지과학자 600여명이 참여하는 음악인지과학 분야 최고의 비엔날레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대륙의 세 개 지역학회가 교대로 개최한다. 학술위원장 취임 직후 Ian Quinn 교수(예일대), John Rink 교수(케임브리지대) 등 8명의 석학을 학술위원으로 위촉하였고, 2013년 로저스 상 수상자인 이석재 교수(서울대 철학과)와 유럽한림원 회원인 Eric Clarke 석좌교수(옥스퍼드대), David Huron 인문학 석학교수(오하이오 주립대)를 기초연설자로 초빙하였다.

민은기 교수, 『클래식 A to Z』(개정판), 『서양음악의 이해(Understanding Music)』(번역서) 출간

Prof. Eungi Min published 『Classic A to Z』(2nd Ed.) and 『Understanding Music』(translated ver.)

『클래식 A to Z』(음악세계) 개정3판과, 『서양음악의 이해(Understanding Music)』(시그마프레스)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오희숙 교수, 제19차 세계미학자대회에서 논문발표

Prof. Hee Sook Oh, presented a research article in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esthetics

폴란드 크라코프(Krakov)에서 열린 제19차 세계미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Aesthetics, 7월 21일~26일)에서 논문 "Paradigm Shift in the Musical Genius Aesthetics"를 발표하였다. 저서 『음악과 천재』가 2013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국제 음악학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Das abgelehnte Genie" - Betrachtungen zur Kritik an der musikalischen Genieästhetik im 20. Jahrhundert" [IRASM]. "Musikalisches Zitat als kulturelle Assoziation - die ästhetische Bedeutung des musikalischen Zitats in der koreanischen Musik des 20. und 21. Jahrhunderts" [ZdGMTH]

FACULTY ACTIVITIES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장형준 교수, 앙상블A 멤버들과 페리지홀 개관기념 음악회 개최

Prof. Hyoung-Joon Chang, held a concert in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the Perigee Hall with the members of the Ensemble A

5월 7일 앙상블 A(Pt.장형준, Vn.정원순, Va.윤진원, Vc.임경원)의 단원으로 페리지홀 개관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여 D.Schostakovich Piano Trio No.2 in e minor, Op.67 A.Dvorak Piano Quartet No. 2 in E flat Major, Op.87등을 연주하였다. 또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 Minnesota에서 열린 e-Piano Junior Competition에 심사위원으로 초빙되었다.

박종화 교수, 오푸스 앙상블 피아니스트로서 예술의전당에서 연주

Prof. Jong-Hwa Park, performed as the pianist of the Opus Ensemble in Seoul Arts Center

작년 말 SONY에서 HEROES 음반을 발매한 이후로, 4월 2일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난치병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에 초청되었다. 4월 10일에는 대전 이응노 미술관에서 ‘음악이 함께하는 대전 미래 나눔’을 주제로 열린 콘서트 ‘The Celebration’에서 피아니스트로 참가하여 연주하였다. 4월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예술의전당에서 앙상블 ‘오푸스’의 피아니스트로서 연주에 참여하였다. 4월 18일에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살롱콘서트 Art-talk에 초청되었으며 4월 24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선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콘서트’에 참여하였다. 5월과 6월에는 EBS와 함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유럽으로 출국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가들과 대담하였고 이 다큐멘터리는 추후 EBS에서 방영 예정이다. 7월 6일에는 코엑스 마하홀에서 살롱콘서트를 개최하였다.

Reichert Aviram 교수, 첼리스트 송영훈과 콘서트 투어

Prof. Reichert Aviram, had a concert tour with Cellist Young-Hoon Song

지난 2월부터 3월에 대구, 부산, 일본 사가미코, 도쿄, 서울 등지에서 첼리스트 송영훈 교수(경희대)과 콘서트 투어를 가졌다. 연세대학교 백양콘서트 개관 페스티벌에서 4 피아니스트 콘서트(4월 18일) 및 서울대학교 목관 오케스트라 공연(4월 26일)에 참여하였고, 5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Rachmaninoff concerto No. 2를 협연하였다. 5월 9일에는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피터 오브차로프 교수(상명대)와 함께 조인트 리사이틀을 가졌고,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아울로스 목관 5중주 정기연주회(5월 14일)에 참여하였다. 5월 30일에는 금호아트홀에서 솔로 독주회를, 6월 14일에는 박창수 하우스 콘서트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가졌다. 7월 20일에서 30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MUZIKA music camp,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Tel Hai master course에 참여하였다.

주희성 교수,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 콘서트

Prof. Hee-Sung Joo, held a Donation Concert for the Korean Society of Chilren’s Leukemia and Cancer

4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솔로 독주회를 가졌다. 이 연주회의 수익금 전액은 사단법인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되었다. 8월 7일부터 13일은 음연에서 주최하는 여름 음악 축제에 초청교수로 참여하였으며, 8월 30일 치악예술회관에서 열린 원주 시립교향악단 제83회 정기연주회에서 임헌정 교수(서울대,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Beethoven Piano Concerto No.5 Op.73 ‘Emperior’를 협연하였다.

최희연 교수, 독일 오스트프리스랜드 하계 음악제 초청으로 베토벤 소나타 연주

Prof. Hie-Yeon Choi, performed Beethoven Sonata at Musikalischer Sommer in Ostfriesland as a guest performer.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3월 12일에 바이올리니스트 루제로 알리프란치니, 첼리스트 피터 스텐프와 함께 베토벤 트리오를 연주하였고 3월 14일, 금호아트홀 기획공연 ‘아름다운 목요일’시리즈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시리즈’ 두 번째 연주를 가졌다. 또한 지난 5월 1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서 피터 야블론스키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 함께 R. Hahn, S. Taneyev의 작품 등을 연주하였다. 6월 13일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12회 정기연주회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독일 오스트프리스랜드 하계 음악제 초청으로 Leer의 대성당에서 베토벤 소나타 4곡으로 독주회를 가졌다.

이경선 교수, 윤이상국제음악제 초청 통영문화회관 연주

Prof. Kyung Sun Lee, performed as a guest musician in the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TongYeong Citizen’s Center.

금호아트홀에서 3월 7일에 양고운 교수(경희대), 최은식 교수(서울대), 이강호 교수(한예종)와 함께 연주하였다. 3월 27일에는 화음챔버오케스트라(리더: 이경선 교수)가 윤이상국제음악제에 초청되어 통영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였다. 4월 29일에는 영화의 전당에서 해운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였으며, 5월 4일에는 백양 콘서트홀에서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였다. 5월 15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 뮤즈윈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6월 22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의 협연자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였다.

FACULTY ACTIVITIES

최은식 교수, ‘Just Viola Night Series 3’에서 음악감독으로 협연 및 연주

Prof. Ensik Choi, performed and cooperated as music director in ‘Just Viola Night Series 3’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4월 28일 열린 ‘Just Viola Night Series 3’의 음악감독을 맡아 viola앙상블과 함께 ‘Rolla Divertimento’ 협연하였다. 5월 14~26일에 진행된 ‘2013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에서 강동석 교수(연세대), 이경선 교수(서울대), 배익환 교수(인디애나대) 등과 함께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차이코프스키 플로렌스의 추억 등을 연주하였다.

백청심 교수, 서울대음대 개최, 앙드레 나바라 25주기 추모음악제 연주

Prof. Chung sim Baik, performed in the 25th year Monument Concert of Andre Navarra hosted by the College of Mus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앙드레 나바라 25주기 추모음악제에서 15일 Opening Concert와 22일 Final Concert에 국내·외 참가교수들과 함께 연주하였다. 또한 제자들로 구성된 SNU Celli Ensemble과의 연주가 8월 3일 파주 카메라타홀을 시작으로 8월 18일 독일 Halle의 Aula der Universitaet Loewengebäude, 8월 23일 독일 Leipzig의 Alte Handlbourse에서 있었다.

백주영 교수, '2013 Casals festival in Korea' 초청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

Prof. Ju-Young Baek, performed in ‘2013 Casals Festival in Korea’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as a guest performer

‘2013 Casals festival in Korea’에 초청되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하였고, 4월 6일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열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류재준의 밤’에서 작곡가 류재준(서울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또한 4월 4일, 6월 20일에는 금호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함께 실내악 연주를 하였으며,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로열필하모닉과 함께 펜데레츠키,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하였다.

김영률 교수, May Concert 발전기금 연주회에서 SNU Wind Ensemble 지휘

Prof. Young-Yul Kim, conducted SNU Wind Ensemble in the May Concert

지난 3월 23일 채리티챔버앙상블 연주에서 앙상블 연주를 하였고 4월 20일에는 슈베르트 8중주를 KT챔버홀에서 연주하였다. 4월 26일 서울대학교 문화

관 대강당에서 SNU WIND Ensemble 연주를 지휘하였으며, 5월 4일 역시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합창단연주를 지휘하였다. 5월 14일에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5월 23일에는 May Concert 발전기금 연주회에서 SNU Wind Ensemble을 지휘하였다. 6월 19일 울산현대예술관에서는 USP Chamber Orchestra와 Mozart 협주곡을 연주하였고, 6월 30일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생 등 국내 호른 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창단한 Seoul Horn Club을 이끌고 예술의전당 IBK Chamber Hall에서 ‘Seoul Horn Club June Concert’를 지휘하였다. 7월 11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사,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행복나눔 콘서트)를, 7월 20일에는 김포 Youth Orchestra 20회 정기연주회를 지휘하였다.

최경환 교수, SNU Symphonic Band 인천 초청 연주 지휘

Prof. Kyung-Hwan Choi, conducted the SNU Symphonic Band in the invited concert in Incheon

인천 송원 장로교회에서 지난 4월 21일에 열린 교회설립 60주년 기념음악회에 초청받아 본교 1,2학년 관악, 타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SNU Symphonic Band를 지휘하였다. 6월 5일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KBS홀에서 서울예고 Symphonic Band를 지휘하였다. 6월 29일에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본교 타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SNU Percussion Ensemble 초청연주가 있었고, 7월 20일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최 교수가 리더로 있는 Percussion Group 4plus 정기연주회 협연이 있었다.

윤혜리 교수, 〈SNU플루트와 목관앙상블〉을 개최하여,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는 무대 마련

Prof. Hyeri Yoon, hosted <SNU flutes and Wood Ensemble> to have a stage of performing with students

지난 4월 4일, 금호 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 연주에 참여하였고, 4월 23일에는 프랑스 플루티스트 조르주 랑발을 초청해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였다. 4월 30일에는 본교 화요음악회에 〈SNU 목관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5월 2일에는 김창국 도쿄대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마스터클래스와 강연을 진행하였고, 5월 10일에는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한국 플루트 교육자협회 (KFEA)정기연주, 5월 14일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목관오중주 아울로스의 연주에 참여하였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페인에서 마스터클래스 개최 및 연주를 하였으며 귀국 후 5월 26일 예술의전당에서 서울 스프링 실내악축제의 마지막 공연 무대에 올랐다. 7월 20~27일 프랑스 프레파이어에서 여름캠프를 주최하여 마스터클래스와 연주회를 가졌고, 8월 28~31일에는 중국 심양에서 아시아 플루트연맹의 쿵쿠리 심사와 연주를 하였다.

FACULTY ACTIVITIES

국악과 Department of Korean Music

이지영 교수, 오스트리아 비엔나 클래식 아트마켓 ‘The Next’ 참가
Prof. Ji-young Yi, participated in the Classic Art-market ‘The Next’ in Vienna, Austria

지난 4월 30일 국립국악원 풍류산방 개관기념공연인 ‘몽심야’ 기획공연에서 영산회상을 연주하였고, 5월 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는 하와이대 교수 토마스 오스본의 작곡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날 이지영 교수가 속한 CMEK(한국 현대음악앙상블)와 함께 ‘Won’t do wrong no more’, ‘Gateways’ 등을 연주하였다. 5월 31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클래식 아트마켓 ‘클래시컬 넥스트’에서 ‘댄싱 산조’, ‘아리랑 산조’, ‘젖은 옷소매’를 연주하였다.

양경숙 교수, 해금독주회 ‘양경숙의 해금’ 개최
Prof. Kyung Sook Yang, held a Haegum Solo Recital ‘Yang Kyung Sook’s Haegum’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4월 7일 열린 ‘양경숙의 해금’ 독주회에서 교수영(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노은아(KBS국악관현악단 단원), 권성택(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SNU 해금앙상블과 함께 이성천 작곡의 ‘한범수류에 의한 해금산조 3중주’, ‘쥐구멍에 별들었어도’, ‘철새, 사철나무 밑동에 둥지를 틀다’, ‘황소의 언덕’을 연주하였다. 5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3 교수음악회’에서 이해식 작곡의 ‘해금을 위한 상’을 연주하였고, 6월 1일, 8일, 15일에는 종묘 재궁에서 열린 ‘종묘음악회’에서 종묘제례악을 연주하였다.

임재원 교수, 캐나다 앨버타주 ‘그랜드 정션 센터’에서 개최된 ‘한·카 50주년 수교 기념 국악의 밤’에서 관현악 감독 및 지휘
Prof. JaeWon Lim, conducted and directed as orchestra director in the ‘Korea-Canada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 Commemoration Concert: Korean Music Night’ held in the Grand Junction Center in Alberta, Canada.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의 지휘자로서 해외 순방 연주회를 감독 및 지휘하였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베나로야 홀에서 열린 ‘코리아 판타지(Korea Fantasy)’ 행사(4월 22일)와 캐나다 앨버타주에 위치한 그랜드 정션 센터에서 열린 ‘한·카 50주년 수교 기념 국악의 밤’(4월 25일) 연주회에서 관현악 연주를 감독, 지휘하였다. 5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3 국악과 교수음악회’에, 5월 10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개최된 ‘정농악회 정기연주회’에 참가하였다. 5월 22·23일 양일간 경기도립국악단 주최의 ‘만남, 그리고 어울림’ 공연에 참가하여 관현악 반주에 의한 창작 협주곡을 연주하였고, 6월 11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제13회 대금연구회 정기연주회’에 참가하여 전통 합주곡을 연주하였다. 6월 13일에는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린 ‘협주곡의 밤’ 공연에서 관현악 연주를, 7월 11일에는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열린 ‘제139회 정기연주회 및 대전 연정국악문화화관 개원기념연주회’에서 관현악 연주를 감독, 지휘하였다.

정대석 교수, 국립국악원에서 독주회 ‘정대석류 거문고산조’ 발표
Prof. Dae-Seok Jeong, presented a recital piece ‘Geomungo Sanjo in style of Jeong Dae-Seok’ in the National Gugak Center.

‘제32회 양주풍류악회 풍류한마당’(3월 29일, 4월 26일)에서 15명의 명인들과 함께 ‘가곡’을 연주하였다. 4월 8일에는 ‘동북아 설창예술 연구 프로젝트-한국의 판소리와 중국의 說唱예술’에 참석하였고, 5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음악회’에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연주하며 ‘정대석류 거문고산조’를 새로이 선보였다. 6월 11일에는 ‘2013 국립국악원 국악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악창작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6월 27일에는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보훈가족을 위한 성남시립국악단 명인전Ⅱ’에 초대되어 본인 작곡의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를 연주하고, 7월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진행된 ‘동보악회 정기연주회’의 총감독을 맡았다. 이후 8월 27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정대석 거문고 독주회’를 통해 ‘정대석류 거문고산조’ 한바탕을 발표하였다.

FACULTY ACTIVITIES

김승근 교수, 제4회 흥진기 창조인상 수상
Prof. Sngkn Kim, awarded as the winner of the 4th Yumin Awards

흥진기 창조인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렸으며 김 교수는 통영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문화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유민 흥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하여 만든 상으로 창의적인 업적을 남긴 젊은 인재에게 수상한다. 6월 1일과 2일 이틀간 2013 Work in Progress를 기획·진행하였다. 또한 6월 9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김승근 창작음악발표회가 열렸다. 심상욱이 지휘를 하고, KOREAN MUSIC PROJECT, 서울대학교 창작국악연주단, 가야금앙상블 Stringendo가 연주하였으며 사회자 한정채와 대담을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을 도입하였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한·독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김 교수가 이끄는 KOREAN MUSIC PROJECT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오벤젤 시 두 곳에서 전통음악 및 창작음악 등을 선보였다.

김우진 교수, 남도국악원에서 개최된 ‘굿음악 페스티벌 학술회의’의 좌장으로 활동
Prof. Woojin Kim, appointed as the Senior Chair of the ‘Kut Music Festival Conference’ held in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Namdo Performing Arts

지난 4월 2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조교 선정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4월 4일에는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기록 (영화)제작 산업에 참여하였다. 4월 8일에는 동북아 설창예술 한국 전장 토론회를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가졌으며, 4월 26일에는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6월 27일~28일까지는 남도국악원에서 전국 대학생 한국음악연구회 특강을 하고 6월 29일~30일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굿음악 페스티벌 학술회의의 좌장으로로서 활동하였다.

핀첨성 교수, 중국 상해에서 열린 ‘42nd 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Music’에서 논문 발표
Prof. Hilary Finchum-Sung, presented a research article in the 42nd 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Music held in Shanghai, China

지난 3월 28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진도아리랑의 보존과 진흥’에서 “미국에서의 아리랑의 의미와 역할”의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4월 2일에는 국립극장 외국인국악아카데미에서 “국악의 음악적 특징과 미의 이해”라는 주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4월 12일 ‘2013한류아카데미 포럼’에서 “국악의 매력”에 대해, 4월 18일 양화진문화원에서 열린 목요특별기획강좌에서 “국악의 매력에 반해버린 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또한 4월 25일에는 정가악회 상설음악학교 <경청>에서, 5월 7일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English Korean Culture and History Lecture Series’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의 ‘2013국제국악연수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였으며, 6월 25일 전주소리축제 ‘소리酒 담그기’ 행사에서 <아리랑연곡>을 연주했다.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42nd 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Music’에서 “It’s easy, right?, The struggle to teach Gugak through Instruments in the ROK’s public School System”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남산한옥마을에서 ‘한범수 류(流)해금산조’를 연주하였다. 또한 논문 “To One’s Heart’s Content: Baramgot and Reclaiming Creative Space in Gugak”, “The Realities of Public kugak Education: Assessing the Kugak Kangsapulje Program/국공립학교 국악교육의 현실: 국악강사풀제 프로그램 평가”(영문과 국문논문)를 발표하였다.

학과 및 연구소 소식 |

성악과

- ▶ 2013년 1학기
 - 4월 3일 ~ 5일 : 성악과 전반기 세미나 (가평 두밀연수원)
 - 교수 특강, 세미나, 단합대회, 체육활동, 선배들과의 간담회
 - 4월 24일 : 성악과 Master Class (예술관 콘서트홀)
 - 강사 : Ten, Francisco Araiza (전문연주자)
 - 5월 13일 : 2013년도 음악대학 오페라 G. Donizetti "Don Pasquale" 주역 오디션 실시 (예술관 콘서트홀)
- ▶ 2013년 2학기
 - 9월 13일 ~ 14일 : Opera "Don Pasquale" 공연(강동아트센터), 총 2회 공연
 - 10월 24일 ~ 26일 : Gaetano Donizetti의 오페라 "Don Pasquale" 공연 (문화관 대강당), 총 4회 공연
 - 11월 중 : 성악과 후반기 세미나 및 체육대회

작곡과

- ▶ 2013년 1학기
 - 4월 4일 ~ 9일 : Erik Lund (University of Illinois 교수) 특강 및 마스터클래스
 - 5월 16일 ~ 24일 : Gerald Chenoweth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교수) 특강
- ▶ 2013년 2학기
 - STUDIO2021, 2013 Autumn Season
 - 9월 16일 : STUDIO I Lecture & Concert (Robert Aldridge, 권민경, 이경선교수 외)
 - 9월 30일 : STUDIO II Lecture & Concert (서정은, Ulf Wallin, Wen-Sinn Yang, 최희연, 최경환 교수 외)
 - 10월 2일 : STUDIO III Concert (Ulf Wallin, Wen-Sinn Yang, 최희연 교수 외)
 - 11월 4일 : STUDIO IV Concert (작곡과, 기악과 학생 비르투오조 콘서트)
 - 11월 11일 : STUDIO V Concert (윤현주 교수 및 SNU New Music Choir and Ensemble)

기악과

- *피아노
 - ▶ 2013년 1학기
 - 3월 23일 : Boris Berman 마스터클래스
 - 4월 23일 : David Ledbetter 강의
 - 5월 10일 : Enrico Elisi 마스터클래스
 - 5월 16일 : Eugene & Elisabeth Pridonoff 마스터클래스
 - 5월 24일 : Ronan O'hora 마스터클래스
 - 5월 27일 : 한가야 마스터클래스
 - 5월 31일 : Boaz Sharon 마스터클래스
 - *현악
 - ▶ 2013년 1학기
 - 3월 13일 : Pedro Alcantara (Alexander Technique) 강의
 - 3월 14일 : Steven Tenenbom Viola 마스터클래스
 - 4월 29일 : Jung Wha Lambert Harp 마스터클래스
 - 5월 17일 : Hou Lei 실내악 마스터클래스
 - 5월 20, 23일 : Alexander Gebert Cello 마스터클래스
 - 5월 24일 : SNU String Ensemble 공연 (예술관 콘서트홀)
 - 5월 24일 : Martin Beaver 실내악 마스터클래스
 - 5월 25일 : Douglas McNabney Viola 마스터클래스
 - 5월 22-28일 : 배익환 교수님 Violin 마스터클래스

- ▶ 2013년 2학기
 - 11월 17일 : SPIRIT OF SNU STRINGS III (예술의전당)
 - 11월 26일 : SNU String Ensemble (예술관 콘서트홀)
- *관악
 - ▶ 2013년 1학기
 - 3월 7일 : Romain Trumpet Master Class
 - 3월 22일 : Jeremy Reynolds Clarinet Master Class
 - 4월 2일 : She-e Wu Percussion Master Class
 - 4월 8일 : SAKURA Saxophone Quartet Master Class
 - 4월 21일 : SNU Symphonic Band 찾아가는 연주회 개최 (인천)
 - 4월 24일 : George Lambert Flute Master Class
 - 4월 26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예술관 콘서트홀)
 - 4월 30일 : SNU Wood Wind Ensemble 화요음악회 연주 (문화관 중강당)
 - 5월 2일 : 일본 도쿄대학 김창국 명예교수 Flute Master Class
 - 5월 17일 : James Smelser Horn Master Class
 - 5월 23일 : SNU Wind Ensemble Spring Concert 연주 (문화관 대강당)
 - 5월 25일 : Romain Guyot Clarinet Master Class
 - 7월 11일 : SNU Wind Ensemble 서울시교육청 사제동행 콘서트 초청 연주 (서울시교육연수원)
 - 7월 15일 : Jerom Laran Saxophone Master Class

- ▶ 2013년 2학기
 - 9월 1일 :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국악과

- ▶ 2013년 1학기
 - 3월 8일 : 신입생환영 연주회
 - 3월 13일 : 신입생 연주회
 - 3월 20일 : 정가악회 수요연주 특강
 - 3월 23일 : KBS국악한마당 녹화(수제천)
 - 4월 8일 : 판소리와 중국설창예술 세미나
 - 4월 24일 : 봄정기연주회
 - 5월 7일 : 교수음악회
 - 5월 16일 : 1학년 가야금 연주회
 - 5월 21일 : 정악합주 연주
 - 5월 22일 : 토마스 오스번 수요연주 특강
 - 5월 22일 : 관악합주 연주
 - 6월 11일 : 가야금 유파 발표회
- ▶ 2013년 2학기
 - 11월 12일 : 국악과 정기연주회

서양음악연구소

- ▶ 2013년 1학기
 - 서양음악연구소 정기 학술 발표
 - 주 최 : 서양음악연구소
 - 일 시 : 2013년 2월 12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종합연구동 220동 430호
 - 발 표 : 이경면 특임연구원
 - 토 론 : 서양음악연구소 연구원 전원
 - 정기간행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음악이론연구 > 20집 발간
 - 발간일 : 2013년 6월 15일
 - 단행본
 - 서양음악연구소 음악학 총서 05 발간
 - 제 목 : 음악의 지각과 인지 II
 - 저 자 :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 책임편집 : 이석원
 - 출판사 : 음악세계 (384쪽)
 - 평생교육
 - (1) 공개강좌
 - 음악실기과정.
 - 교회음악지도자과정.
 - (2) 시민인문강좌
 -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학
 - 주 최 : 서양음악연구소
 - 지 원 : 한국연구재단
 - 협약기관 : 인천중앙도서관, 보성여고, 제주대음악멘토링센터, 용신중학교
 - 내 용 : 위 네 기관에서 일반시민들과 저소득 또는 소외 청소년 계층을 위한 무료 음악학 강좌 20회 개최
 - 일 정 : 2012년 9월~2013년 5월
 - (3) 여름 음악 아카데미
 - 주 제 :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
 - 주 최 : 서양음악연구소
 - 주 관 :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사진 :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전임교수
 - 대 상 : 청소년 및 일반
 - 일 시 : 2013년 7월 25일~8월 3일
 - ▶ 2013년 2학기
 - 12월 중 : 음악이론연구 출간 예정

2013년도 1학기	화요음악회	병원음악회
심포니 오케스트라 4월 8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1 5월 27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2 5월 28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월 22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대학오케스트라축제 개막공연)	4월 9일 SAKURA Saxophone Quartet 4월 30일 SNU 목관 앙상블 5월 7일 가야금 앙상블 '사계' 학생오디션 우승팀 5월 21일 Duo Recital (Vc. A. Gebert Pf. A. M. Kokits) 5월 28일 Young-Hyun Cho's Solo Piano Recital	5월 21일 서울 보라매병원 5월 24일 연건 서울대병원 6월 14일 분당 서울대병원

2013년도 2학기	화요음악회	병원음악회
심포니 오케스트라 10월 24~26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 돈 파스칼레 연주 11월 27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내연주회 12월 12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월 13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교내) 12월 16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영남대 천마아트센터) 12월 17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전북대 삼성문화회관)	10월 8일 백청심 교수 독주회 10월 22일 듀오 리사이틀 (Wei He, violin Yoshikasu Nagai, piano) 11월 5일 가브리엘 초도스 피아노 독주회 11월 26일 천원지에 피아노 독주회 12월 3일 학생오디션 우승팀 연주회	11월 1일 서울 보라매병원 11월 6일 분당 서울대병원 12월 20일 연건 서울대병원(예정)

동양음악연구소

- ▶ 2013년 1학기
 - 신규발령 : 동양음악연구소장에 국악과 김우진 교수 임명
- ▶ 2013년 2학기
 - 학술회의 예정
 - 주 최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 일 시 : 2013년 9월 27~28일
 - 학회명 : 한국농악의 과거 · 현재 · 미래

오페라연구소

- ▶ 2013년 1학기
 - 2013년도 음악대학 오페라 G. Donizetti "Don Pasquale" 무대 및 공연준비
 - 오페라 주역 오디션 실시 : 5월 13일 /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
- ▶ 2013년 2학기
 - Opera "Don Pasquale" 공연(강동아트센터), 총 2회 공연 (9월 13일~14일)
 - 예술총감독 : 박세원
 - 지 휘 : 구모영 (SNU Harmonia 심포니 오케스트라)
 - 합창지휘 : 윤현주 (서울대학교 성악과 합창단)
 - 연 출 : 이경재
 - 음악코치 : 최혜기, 목은아
 - 출 연 : Don Pasquale(허철수), Norina(김성지, 이은송이), Ernesto(진성원, 김태원), 최강자(Malatesta)
- Gaetano Donizetti의 오페라 "Don Pasquale" 공연(문화관 대강당), 총 4회 공연 (10월 24일~26일)
- 예술총감독 : 윤현주
- 지 휘 : 김덕기, 김영량 (SNU Harmonia 심포니 오케스트라)
- 연 출 : 이경재
- 출 연 : Don Pasquale(이바울, 함정찬, 김종화) Norina(김주혜, 최예슬, 박주현) Ernesto(강윤광, 장주훈, 고태영) Malatesta(황선연, 우중범, 안정민)

“2013 Summer Music Academy”를 마치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Summer Music Academy”가 2013년 7월 25일(목)부터 8월 3일(토)까지 10일간 서양음악연구소(소장 작곡과 이석원 교수)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피아노 전공의 김귀현, 문익주, 박종화, 장형준, 주희성, 최희연 교수가 참여해 앞으로 우리 음악계를 이끌어갈 어린 꿈나무들에게 배움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18명의 수강생들은 각 4회의 공개레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레슨에도 참관하여 진지한 자세로 친구의 연주와 교수님의 지도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7월 31일에는 문익주 교수와 함께한 “교수님과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생활이나 진로에 관한 고민과 꿈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8월 3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학생연주회에서는 수강생들이 각자 준비한 레퍼토리를 연주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2013 SMA”의 학생연주회는 좋은 시설을 갖춘 홀에서 연주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연주를 희망하는 수강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날 학생 연주회와 수료식으로 워크샵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동문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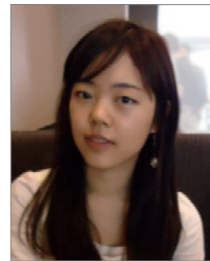
이자람의 ‘사천가’ 폴란드 콘택 국제연극제 공식초청 및 시카고 월드페스티벌 초청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 ‘사천의 선인’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작품으로 현재 한국 현실의 우스꽝스럽고 한심함 세태를 시원스레 꼬집고 아우른다. 2007년 초연을 시작으로 매 공연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오고 있다. 창작 판소리 장르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호응을 얻은 <사천가>는 초연 이래 매회 매진을 기록할 만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외국작품의 번역극이 아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교합인 동시에 서사극에서 출발해 판소리와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조화에 이르는 예술적 작품성에도 완벽한 극적 도달을 이룬 작품으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또한 2010년 폴란드 콘택 국제연극제 공식초청과 함께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 월드뮤직페스티벌과 워싱턴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한편, 2011년 프랑스 리옹 민중극장, 파리 시립극장에도 초청되면서 ‘사천가’ 불어집이 발간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서울대음대 국악과 판소리전공 졸업 및 석사 졸업, 현 박사과정)

전예은 ASCAP Morton Gould Young Composer Awards



ASCAP(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는 BMI와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작곡가 단체로, 1979년도에 설립된 후 약 30만명에 달하는 미국작곡가·작사자·출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몇 명의 어린 작곡가들을 뽑아 Morton Gould Awards를 수여하는데 우리 음대 작곡과를 졸업한 전예은 학생이 올해 이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서울대음대 작곡과 작곡전공 졸업 및 이스트만음대 석사 졸업, 현 인디애나음대 박사과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교육기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빨간 우체통



어디에? 54동 음악대학 1층 로비

음악대학 소식 제12호 | 2013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영률

기획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전상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_ 오희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_ 김혜영 기획홍보실 실무관

박성우 작곡과 이론전공

김석영 작곡과 이론전공

임어은 작곡과 이론전공

영문_ 스노버 고운 작곡과 이론전공

사진_ 249 스튜디오

디자인_ 디자인아프리카

인쇄_ 성광피엔피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 12

Publisher_ Prof. Young-Yul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r_ Prof. Sangjick Jun, Associate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Committee

Editor_ Prof. Oh, Hee Sook,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_ Kim, Hyeyoung, Office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Seong U Bak, BA course in Musicology

Seok Young Kim, BA course in Musicology

Yeo Eun Lim, BA course in Musicology

English_ Gowoon Kim, Snover BA course in Musicology

Photo_ 249 Studio

Design_ Design in Africa

printing_ SUNGKWANG P&P